

# 민주당 TK 투표열기 후끈

### 첫날 투표율 51.6% 집계 이재명, 당원들 기대감 한몸에 이낙연, 쉽지 않은 승부에 신중 주자들, 영끌 전략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 투표 열기가 레이스를 달구고 있다.

8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TK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첫날인 7일 투표율은 51.6%로 집계됐다.

앞서 첫 순회경선지 대전·충남이 이를 통틀어 37.3%, 그 다음인 세종·충북이 41.9%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높아진 수치다.

민주당의 '힘지' TK는 11개 경선 권역 중 제주 다음으로 권리당원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경선 흥행 차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2일 '1차 슈퍼워크' 당일까지 64만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를 진행된

다는 점에서, 11일 개표되는 TK 지역 민심의 향배는 경선판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그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충청권 과반 득표에 이어 '고향' 대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보 주자 사이에서는 이 지사의 경선 초반전 과반 득표가 위기감을 자극, 진영별 '조직표'가 결집한 결과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다.

주자들은 SNS에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전파에 힘쓰는 등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는 '영끌' 전략을 가동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TK 경선이라고 해도 결국 당내 투표다. 충청에서 압승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원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TK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할 기회가 오자 참여

와 결집도가 올라간 것"이라며 "대세론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TK 선거에 충청권의 여진이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승부"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다만 "경쟁이 좁혀지려면 투표율이 50% 후반대, 60% 가까이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초반 이 지사가 우세한 데 대해 위기감이 작용하면서 각 후보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번 주말 의미있는 득표로 선두권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 캠프는 그가 대구 출생이라는 점에서 선전을 기대하는 눈치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TBC TV토론회 후 경북에 머물며 밀박박을 뿜고 있고, 김두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경권 메가시티'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여야 8인협의체, 언론중재법 첫 회의 8일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건례 겸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헌주 한림대학교수, 김용민·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부동산, 아픈 손가락”... 고개 숙인 윤호중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거책임제 등 해법 제시 '위드 코로나' 공식 언급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동산·청년 정책과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 민심과 2030 민심을 달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위드 코로나'를 공식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집중 언급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 투기수요 차단 등을 제시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 도입도 언급했다.

청년 문제 대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의 확대와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을 약속하고,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 등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다"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위드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확대 및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을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까지 점차 넓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9월 27일 분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날 중 처리를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연합뉴스



김용, 해명 기자회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유 의혹'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인 국민의힘 김용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회공화국 만들 것”...김동연 대선 출마

### 유튜브 채널서 공식 선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국민과 힘을 모으면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체 유튜브 채널인 '김동연TV'에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출마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start)을 하고, 성장(up)을 시키는 나라다.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며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



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며 '제3시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 해소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이 야기하지만, 아니다. 이제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기존 정치 세력을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시겠다"라며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

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득권 해소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국회 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더 고된 기회가 만들어진다. 청년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수저 색깔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일할 기회, 기업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창설도 제안했다. 여야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경제 공약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하는 주장이다. 그는 "당선되는 후보는 공통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른 후보들은 힘을 모아주자고 약속하자"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하루 뒤인 9일 대선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영록,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1위

### 리얼미터 지지도 조사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월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4개월 연속 선두를 지키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2위로 밀리고 전남 김영록 지사(사진)가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

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조사해 8일 발표한 8월 지지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전 달보다 3.1%포인트 오른 61.6%로 가장 높았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같은 조사에서 1위였던 이 지사는 4.5%포인트 하락한 55.5%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53.9%, 53.1%로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4.9%포인트 하락한 47.5%로, 기존 3위에서 5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구직, 모집, 매매, 부동산, 광고, 영업, 분양, 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조합은 서기 2021년 3월 27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9일

순천시 매곡동 주공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청산인대표 송순임

##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수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원차적 편의 법원사 준수 시간적 효율

▶ 시사회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끝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